

김옥채 사무총장, 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개최(1.3)

관련 언론보도 스크랩

2020.01.09.(목)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경북도민일보	경북도, 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2	신문	경북신문	경북도, NEAR사무국대표단 몽골파견 신년 간담회	
3	신문	경안일보	올해 한·몽 수교 30주년 맞아 자치단체간 교류 활성화 기대	
4	신문	세명일보	경북도, 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개최	
5	신문	경상매일신문	한-몽 수교 30주년,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6	신문	경북일일신문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7	신문	경북연합일보	한-몽 수교 30주년 지자체간 교류 적극적 추진 논의	
8	신문	일간경북신문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9	신문	대구광역일보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10	신문	구미일보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개최	
11	온라인	이뉴스투데이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개최	
12	온라인	GBN경북방송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개최	
13	온라인	뉴시스	몽골 지방정부, 경북과 교류에 큰 기대	
14	온라인	뉴스웨이	경북도, 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가져	
15	온라인	뉴스핍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 신년 간담회... 교류 활성화 논의	
16	온라인	국제i저널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17	온라인	로컬투데이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18	온라인	비즈니스코리아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개최	
19	온라인	경북인터넷뉴스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개최	
20	온라인	케이에스피뉴스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개최	
21	온라인	세계타임즈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개최	
22	온라인	뉴스랩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경북도, 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한·몽 수교 30주년 맞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경북도는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등 대표단을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해 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NEAR의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몽골 회원단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년 초에도 불구하고 몽골 전국 21개 아이막(州) 중 아르항가이, 바양홍고르, 읍노고비주 등 15개 주지사가 참가해 관심을 나타냈다. 몽골 단체장들은 간담회에서 사무국으로부터 새해에 개최되는 NEAR의 국제교류 행사계획을 청취한 후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와 몽골 회원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



경북도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 등 대표단을 지난 2일부터 4일간 몽골로 파견해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를 갖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양국 관계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몽골 총리실 직속 내각사무처 브루스 부처장 및 울란바타르 앙흐마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하고 한국·몽골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해 청소년 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NEAR 사무국 일행은 몽골국제대학교를 방문, 2020 동북아 청년리더스포럼을 오는 8월 울란바타르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우섭기자 kws@hidomin.com

경북신문

2020년 01월 09일 목요일 003면 종합

경북도, NEAR사무국 대표단 몽골 파견 신년간담회 '연합발전 방안 논의'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울란바타르시에 4일간 파견 수교 30주년 교류협력 강화 15개 주지사도 참여 '큰 관심' 친선교류 주선 요청 등 제안

경북도가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을 지난 2일부터 5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해 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합의 발전 방안

을 논의했다.

3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평소 지리적 제약으로 NEAR의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몽골 회원단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년 초에도 불구하고 몽골 전국 21개 아이막(市) 중 아르항가이, 바양홍고르, 읍노고비주 등 15개 주지사가 참가해 연합의 활동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몽골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무국으로부터 새해에 개최되는 NEAR

R의 국제교류 행사계획을 청취한 후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와 몽골 회원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몽골 총리실 직속 내각사무처 브루스 부처장 및 울란바타르 앙흐마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해 한국·몽골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 청소년 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NEAR 사무국 일행은 몽골국제대학교(MIU)를 방문, 2020동북아청년

리더스포럼'을 오는 8월 울란바타르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8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로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인교기자



올해 한·몽 수교 30주년 맞아 자치단체간 교류 활성화 기대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개최

경북도는 김옥채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을 지난 2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해 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합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아해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평소 지리적 제약 등으로 NEAR의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몽골 회원단체를 위해 마련됐다. 신년 초에도 불구하고 몽골 전국 21개 아이막(州) 중 아르항가이, 바양홍고르, 읍노고비주 등 15개 주지사가 참가해 연합의 활동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몽골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무국으로부터 새해에 개최되는 NEAR의 국제교류 행사계획을 청취한 후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와 몽골 회원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몽골 총리실 직속 내각사무처 밤브수르 부처장 및 울란바타르 앙흐마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해 한국·몽골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해 청소년 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NEAR 사무국 일행은 몽골 국제대학교(MIU)를 방문해 '2020 동북아 청년리더스포럼'을 오는 8월 울란바타르에서 공동 개최기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 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구동 기자 ga7799@gailbo.com

경북도, 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개최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이 자치단체간 교류



NEAR사무총장(왼쪽)·울란바타르 부시장 면담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을 지난 2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해 몽골 15개 주지사들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합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평소 지리적

제약 등으로 NEAR의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몽골 회원단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년 초에도 불구하고 몽골 전국 21개 아이막(州) 중 아르항가이, 바양홍고르, 움느고비주 등 15개 주지사가 참가해 연합의 활동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몽골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무국으로부터 새해에 개최되는

NEAR의 국제교류 행사계획을 청취한 후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와 몽골 회원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몽골 총리실 직속 내각사무처 밤브수릉 부처장 및 울란바타르 앙흐마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해 한국·몽골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해 청소년 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NEAR 사무국 일행은 몽골국제대학교(MIU)를 방문해 '2020 동북아 청년리더스포럼'을 오는 8월 울란바타르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지난 1996년 9월 한국·중국·일본·러시아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용길 기자 rknews12@naver.com

경상매일신문

2020년 01월 09일 목요일 003면 종합

한-몽 수교 30주년,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경북, NEAR 사무국 대표단 몽골 울란바타르시 파견
15개 주지사들과 신년 간담회...연합 발전 방안 논의

경북도가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을 지난 2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해 몽골 15개 주지사들과 신년 간담회를 열고 NEAR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간 교류협

력을 강화하고자 열린 이번 간담회는 평소 지리적 제약 등으로 NEAR의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몽골 회원단체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신년 초이지만 몽골 전국 21개 아이막(州) 가운데 아르항가이, 바양홍고르, 움느고비 등 15곳의 주지사가 참가해 NEAR 활동 큰 관심을 나타냈다.

몽골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새해에 열리는 NEAR의 국제교류 행사계획을 듣고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몽골 총리실 직속 내각사무처 밤브수릉 부처장과 울란바타르 앙흐마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해 한-몽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를 기념해 청소년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NEAR 사무국 일행은 몽골국제대학교(MIU)도 방문해 '2020 동북아 청

년리더스포럼'을 오는 8월 울란바타르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발전과 번영을 이루자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상수 기자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한·몽 수교 30주년 맞아
자치단체간 교류 추진키로

경북도는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을 지난 2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하여 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합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평소 지리적 제약 등으로 NEAR의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몽골 회원단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년 초에도 불구하고 몽골 전국 21개 아이막(州) 중 아르항가이, 바양홍고르, 움노고비주 등 15개 주지사가 참가하여 연합의 활동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몽골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무국으로부터 새해에 개최되는 NEAR의 국제교류 행사계획을 청취한 후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와 몽골 회원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몽골 총리실 직



속 내각사무처 밤브수름 부처장 및 울란바타르 앙흐마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하여 한국-몽골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하여 청소년 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NEAR 사무국 일행은 몽골국제

대학교(MIU)를 방문하여 2020 동북아 청년리더스포럼을 오는 8월 울란바타르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

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북연합일보

2020년 01월 09일 목요일 001면 종합

한-몽 수교 30주년 지자체간 교류 적극적 추진 논의

도, 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간담회

경북도는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을 지난 2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해 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합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평소 지리적 제약 등으로 NEAR의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몽골 회원단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년 초에도 불구하고 몽골 전

국 21개 아이막(州) 중 아르항가이, 바양홍고르, 움노고비주 등 15개 주지사가 참가하여 연합의 활동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몽골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무국으로부터 새해에 개최되는 NEAR의 국제교류 행사계획을 청취한 후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와 몽골 회원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몽골 총리실 직속 내각사무처 브수름 부처장 및 울란바타르 앙흐마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해 한국·몽골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하여 청소년 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NEAR 사무국 일행은 몽골국제대학교(MIU)를 방문해 '2020 동북아 청년리더스포럼'을 오는 8월 울란바타르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인호 기자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경상북도는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을 1월 2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하여 몽골 15개 주지사들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합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평소 지리적 제약 등으로 NEAR의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몽골 회원단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년 초에도 불구하고 몽골 전국 21개 아이

막(州) 중 아르항가이, 바양홍고르, 움노고비주 등 15개 주지사가 참가하여 연합의 활동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몽골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무국으로부터 새해에 개최되는 NEAR의 국제교류 행사계획을 청취한 후 **경북도** 기초자치단

체와 몽골 회원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몽골 총리실 직속 내각사무처 발브수릉 부처장 및 울란바타르 양호마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하여 한국·몽골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하여 청소년 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NEAR 사무국 일행은 몽골국제대학교(MIU)를 방문하여 「2020 동북아 청년리더스포럼」을 오는 8월 울란바타르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재원기자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 대표단과 몽골 15개 주지사들이 지난 3일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한 호텔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자치단체간 교류 적극 추진키로

경북도가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을 지난 2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해 몽골 15개 주지사들과 신년 간담회를 열고 NEAR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열린 이번 간담회는 평소 지리적 제약 등으로 NEAR의 국제교류 행사에 참

여 기회가 제한적인 몽골 회원단체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신년 초이지만 몽골 전국 21개 아이막(州) 가운데 아르항가이, 바양홍고르, 움노고비 등 15곳의 주지사가 참가해 NEAR 활동 큰 관심을 나타냈다.

몽골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새해에 열리는 NEAR의 국제교류 행사계획을 듣고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몽골 총리실 직속 내각사무처 밤브수름 부처장과 울란바타르 앙흐마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해 한-몽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를 기념해

청소년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NEAR 사무국 일행은 몽골국제대학교(MIU)도 방문해 '2020 동북아 청년리더스 포럼'을 오는 8월 울란바타르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발전과 번영을 이루자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구미일보

“경상북도-몽골 15개 주지사과 신년 간담회 개최”

한, 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자치단체간 교류 적극 추진키로

이안성 기자 kgnews@hanmail.net

등록 2020.01.08 14:32:30



경상북도는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을 1월 2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하여 몽골 15개 주지사들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합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평소 지리적 제약 등으로 NEAR의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몽골 회원단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년 초에도 불구하고 몽골

전국 21개 아이막(州) 중 아르항가이, 바양홍고르, 움느고비주 등 15개 주지사가 참가하여 연합의 활동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몽골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무국으로부터 새해에 개최되는 NEAR의 국제 교류 행사계획을 청취한 후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와 몽골 회원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몽골 총리실 직속 내각사무처 밤브수릉 부처장 및 울란바타르 앙흐마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하여 한국·몽골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하여 청소년 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NEAR 사무국 일행은 몽골국제대학교(MIU)를 방문하여 「2020 동북아 청년리더스포럼」을 오는 8월 울란바타르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저작권자 © 구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구미일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경북도, 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개최

남동락 기자 | 승인 2020.01.08 14:45

|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자치단체간 교류 적극 추진키로



경북도-몽골, 회원단체 신년 간담회 장면[사진=경북도]

[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경상북도는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을 1월 2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해 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합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평소 지리적 제약 등으로 NEAR의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몽골 회원단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년 초에도 불구하고 몽골 전국 21개 아이막(州) 중 아르항가이, 바양홍고르, 움느고비주 등 15개 주지사가 참가하여 연합의 활동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몽골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무국으로부터 새해에 개최되는 NEAR의 국제교류 행사계획을 청취한 후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와 몽골 회원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몽골 총리실 직속 내각사무처 밤브수릉 부처장 및 울란바타르 양흐마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하여 한국·몽골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하여 청소년 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NEAR 사무국 일행은 몽골국제대학교(MIU)를 방문하여 「2020 동북아 청년 리더스포럼」을 오는 8월 울란바타르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동락 기자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과 신년 간담회 개최 한, 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자치단체간 교류 적극 추진키로

진혜인 기자 / hyein2314@naver.com 입력 : 2020년 01월 08일(수) 14:53



© GBN 경북방송

경상북도는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을 1월 2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하여 몽골 15개 주지사들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합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평소 지리적 제약 등으로 NEAR의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몽골 회원 단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년 초에도 불구하고 몽골 전국 21개 아이막(州) 중 아르항가이, 바양홍고르, 움느고비주 등 15개 주지사가 참가하여 연합의 활동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몽골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무국으로부터 새해에 개최되는 NEAR의 국제교류 행사에

획을 청취한 후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와 몽골 회원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GBN 경북방송

김옥채 사무총장은 몽골 총리실 직속 내각사무처 방브수릉 부처장 및 울란바타르 앙흐마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하여 한국·몽골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하여 청소년 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NEAR 사무국 일행은 몽골국제대학교(MIU)를 방문하여 「2020 동북아 청년리더스포럼」을 오는 8월 울란바타르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url : http://www.egbn.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46&idx=124908

Copyrights © GBN 경북방송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IS 지방 > 대구/경북

몽골 지방정부, 경북과 교류에 큰 기대

류상현 기자 | spring@newsis.com

등록 2020-01-08 14:25:12



[안동=뉴스시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 대표단과 몽골 15개 주지사들이 지난 3일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한 호텔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0.01.08

[안동=뉴스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을 지난 2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해 몽골 15개 주지사들과 신년 간담회를 열고 NEAR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열린 이번 간담회는 평소 지리적 제약 등으로 NEAR의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몽골 회원단체

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신년 초이지만 몽골 전국 21개 아이막(州) 가운데 아르항가이, 바양홍고르, 움느고비 등 15곳의 주지사가 참가해 NEAR 활동 큰 관심을 나타냈다.

몽골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새해에 열리는 NEAR의 국제교류 행사계획을 듣고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채 NEAR 사무총장은 몽골 총리실 직속 내각사무처 밤브수릉 부처장과 울란바타르 앙흐마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해 한-몽 수교 30주년이 되는 올해를 기념해 청소년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NEAR 사무국 일행은 몽골국제대학교(MIU)도 방문해 '2020 동북아 청년리더스포럼'을 오는 8월 울란바타르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발전과 번영을 이루자는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 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가져

등록_2020-01-09 09:06:10



사진제공=경북도

경상북도는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을 지난 2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해 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합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몽골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무국으로부터 새해에 개최되는 NEAR의 국제교류 행사계획을 청취한 후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와 몽골 회원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NEAR 사무국 일행은 몽골국제대학교(MIU)를 방문해 '2020 동북아 청년리더스포럼'을 오는 8월 울란바타르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Copyright NewsWay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뉴스핌 기사 프린트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 신년 간담회...교류 활성화 논의

NEAR 대표단, 몽골 방문...'동북아 청년리더스포럼' '8월 개최

-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17:12
-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17:12

[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상북도는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을 지난 2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해 몽골 15개 주지사들과 신년 간담회를 갖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과 사무국 대표단이 지난 2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를 방문해 몽골 15개 주지사들과 신년 간담회를 가진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2020.01.08 nulcheon@newspim.com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평소 지리적 제약 등으로 NEAR의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몽골 회원단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년 초에도 불구하고 몽골 전국 21개 아이막(州) 중 아르항가이, 바양홍고르, 움노고비주 등 15개 주지사가 참가해 연합의 활동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몽골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무국으로부터 새해에 개최되는 NEAR의 국제교류 행사계획을 청취한 후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와 몽골 회원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몽골 총리실 직속 내각사무처 방브수릉 부처장과 울란바타르 앙흐마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하고 한국·몽골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한 청소년 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경북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몽골을 방문해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왼쪽)이 울란바타르 부시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0.01.08 nulcheon@newspim.com

NEAR 사무국 일행은 또 몽골국제대학교(MIU)를 방문해 '2020 동북아 청년리더스포럼'을 오는 8월 울란바타르시에서 공동 개최기로 뜻을 모으고 향후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난 1996년 9월, 경북도 주도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 참여로 창설된 국제기구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HOME 사회 일반사회 경상북도

경북도, 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개최

한, 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자치단체간 교류 적극 추진키로

박서연 기자

승인 2020.01.09 01:45



▲경북도, 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개최 © 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박서연 기자] 경상북도는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을 1월 2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하여 몽골 15개 주지사들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합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평소 지리적 제약 등으로 NEAR의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몽골 회원단체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신년 초에도 불구하고 몽골 전국 21개 아이막(州) 중 아르항가이, 바양홍고르, 움느고비주 등 15개 주지사가 참가하여 연합의 활동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몽골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무국으로부터 새해에 개최되는 NEAR의 국제교류 행사계획을 청취한 후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와 몽골 회원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몽골 총리실 직속 내각사무처 밤브수릉 부처장 및 울란바타르 앙흐마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하여 한국·몽골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하여 청소년 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서연 기자 ijj@ij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개최

한, 몽 수교 30주년을 맞아 자치단체간 교류 적극 추진키로

기사입력시간 : 2020/01/08 [15:49:00]

노성순기자



▲ [사진제공=경북도청]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개최 © 로컬투데이

[로컬투데이=안동]노성순기자/경상북도는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을 지난 2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해 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합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평소 지리적 제약 등으로 NEAR의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몽골 회원단체를 위해 마련됐다. 신년 초에도 불구하고 몽골 전국 21개 아이막 중 아르항가이, 바양홍고르, 움느고비주 등 15개 주지사가 참가해 연합의 활동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몽골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무국으로부터 새해에 개최되는 NEAR의 국제교류 행사계획을 청취한 후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와 몽골 회원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몽골 총리실 직속 내각사무처 밤브수르 부처장 및 울란바타르 앙흐마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해 한국·몽골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해 청소년 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NEAR 사무국 일행은 몽골국제대학교를 방문해 '2020 동북아 청년리더스포럼'을 오는 8월 울란바타르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자치단체간 교류 적극 추진키로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개최

By 이송훈 | 2020.01.08 18:31

[비즈니스코리아=이송훈 기자] 경상북도는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연합(NEAR)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을 1월 2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하여 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합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평소 지리적 제약 등으로 NEAR의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몽골 회원단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년 초에도 불구하고 몽골 전국 21개 아이막(州) 중 아르항가이, 바양홍고르, 움느고비주 등 15개 주지사가 참가하여 연합의 활동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등 사무국 대표단과 몽골 15개 주지사들이 지난 3일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한 호텔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몽골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무국으로부터 새해에 개최되는 NEAR의 국제교류 행사계획을 청취한 후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와 몽골 회원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몽골 총리실 직속 내각사무처 밤브수릉 부처장 및 울란바타르 앙흐마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하여 한국·몽골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하여 청소년 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NEAR 사무국 일행은 몽골국제대학교(MIU)를 방문하여 「2020 동북아 청년리더스포럼」을 오는 8월 울란바타르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승훈

최종편집일 2020-01-09 16:04

2020년 1월 09일 (목요일) 16:07:37

경북 20°C

로그인



뉴스룸 오피니언 인사이트 시민참여

회사소개 독자(후원)가입 기사제보 전국네트워크



경북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관계자 교육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 and 신년 간담회 개최



경북도, 간부회의의 디지털화 하



경북도 주민 안전을 위해 선제 적으로 대응하겠다

뉴스룸 > 경북도정뉴스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 and 신년 간담회 개최 한, 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자치단체간 교류 추진

기사입력 2020-01-08 15:43 최종수정

복사 공유 인쇄

경상북도는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을 1월 2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하여 몽골 15개 주지사들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합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평소 지리적 제약 등으로 NEAR의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몽골 회원단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년 초에도 불구하고 몽골 전국 21개 아이막(州) 중 아르항가이, 바양홍고르, 웅노고비주 등 15개 주지사가 참가하여 연합의 활동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몽골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무국으로부터 새해에 개최되는 NEAR의 국제교류 행사계획을 청취한 후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와 몽골 회원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경북도 실국장 및 부단체장 등 23명 인사



전남도와 경상북도 어깨동무 우 리는 하나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 경북 상주에서 첫 삽..



이철우 지사, 2020년 신년하루 '녹풍다경'(綠風多慶)제시



2020 경북 호미곶.. 한민족 해맞 이 축전 열려



“세상을 바꿉니다”
사건, 사고, 미담등 기사제보해 주세요.

기사제보 054) 452-8030 온라인제보

베스트기사

[구미시정뉴스] 구미시 민선 체육회장 조병윤 후보 당선

[구미시정뉴스] 구미시 6급 이하 147명 승진의결

[구미시정뉴스] 2020년 경자년(庚子年)구미지역 일출...

[구미시정뉴스] 2020년 새해맞이 구미시민 안녕.행복...

[경북도정뉴스] 2020 경북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

[구미시정뉴스] 제19대 김세환 구미시 부시장 취임

[구미시정뉴스] 장세용 구미시장, 새해 기업현장에서...

[경북도정뉴스] 이철우 도지사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경북도정뉴스]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취임

[구미시정뉴스] 11월 30일 구미시 읍, 면, 동 기관 단체...

Hot 포토이슈

1 / 2



김옥채 사무총장은 몽골 총리실 직속 내각사무처 방브수령 부처장 및 울란바타르 앙호마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하여 한국·몽골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하여 청소년 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NEAR 사무국 일행은 몽골국제대학교(MIU)를 방문하여 「2020 동북아 청년리더스 포럼」을 오는 8월 울란바타르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북인터넷뉴스 (kinzadux@yandex.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기사후원하기 >](#)

[구독신청하기 >](#)

여러분의 후원이 경북인터넷뉴스의
가장 큰 힘입니다!

경북인터넷뉴스 후원하기 >

후원/행사취재요청

☎ 054-452-8030

iNEWS 경북도정뉴스 관련기사

경북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관계자 교육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 및 신년 간담회 개최
경북도, 간부회의 디지털화 하대
경북도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철우 도지사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도정도 변하지 않는다

댓글 0

작성자

비밀번호

내용은 5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개최

한, 몽 수교 30주년을 맞아 자치단체간 교류 적극 추진키로

기사입력시간 : 2020/01/08 [14:55:00]

양대영 기자 kspa@kspnews.com



NEAR사무총장-울란바타르 부시장 면담

[케이에스피뉴스=양대영 기자 kspa@kspnews.com]경상북도는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을 지난 2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해 몽골 15개 주지사들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합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평소 지리적 제약 등으로 NEAR의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몽골 회원단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년 초에도 불구하고 몽골 전국 21개 아이막 중 아르항가이, 바양홍고르, 움노고비주 등 15개 주지사가 참가해 연합의 활동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몽골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무국으로부터 새해에 개최되는 NEAR의 국제교류 행사계획을

청취한 후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와 몽골 회원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몽골 총리실 직속 내각사무처 밤브수릉 부처장 및 울란바타르 앙흐마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해 한국·몽골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해 청소년 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NEAR 사무국 일행은 몽골국제대학교를 방문해 '2020 동북아 청년리더스포럼'을 오는 8월 울란바타르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자치단체간 교류 적극 추진키로

[세계로컬핫뉴스]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개최

이창재 기자 news@thesegeye.com | 2020-01-08 20:30:52



[경북=세계타임즈 이창재 기자] 경상북도는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을 1월 2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하여 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합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평소 지리적 제약 등으로 NEAR의 국제교류 행사에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몽골 회원단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년 초에도 불구하고 몽골 전국 21개 아이막(州) 중 아르항가이, 바양홍고르, 움느고비주 등 15개 주지사가 참가하여 연합의 활동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몽골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무국으로부터 새해에 개최되는 NEAR의 국제교류 행사계획을 청취한 후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와 몽골 회원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몽골 총리실 직속 내각사무처 밤브수릉 부처장 및 울란바타르 앙흐마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하여 한국·몽골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하여 청소년 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NEAR 사무국 일행은 몽골국제대학교(MIU)를 방문하여 「2020 동북아 청년리더스포럼」을 오는 8월 울란바타르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세계타임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thesegeye.com>]

뉴스레프

HOME > 사회

경북도-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

윤 이석만 기자 | 승인 2020.01.08 15:07

| 한, 몽 수교 30주년 맞아 자치단체간 교류 적극 추진키로



▲ NEAR사무총장-울란바타르 부시장 면담

[뉴스레프]경상북도는 김옥채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 등 사무국 대표단을 지난 2일부터 4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파견해 몽골 15개 주지사와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합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몽 수교 30주년을 맞아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평소 지리적 제약 등으로 NEAR의 국제교류 행사

에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몽골 회원단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년 초에도 불구하고 몽골 전국 21개 아이막 중 아르항가이, 바양홍고르, 움느고비주 등 15개 주지사가 참가해 연합의 활동에 대한 큰 관심을 나타냈다.

몽골 단체장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무국으로부터 새해에 개최되는 NEAR의 국제교류 행사계획을 청취한 후 경북도 기초자치단체와 몽골 회원단체와의 친선교류 주선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옥채 사무총장은 몽골 총리실 직속 내각사무처 밤브수릉 부처장 및 울란바타르 앙흐마 부시장을 별도로 면담해 한국·몽골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해 청소년 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NEAR 사무국 일행은 몽골국제대학교를 방문해 '2020 동북아 청년리더스포럼'을 오는 8월 울란바타르시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레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만 기자